

## 처방 구성요소 비교를 통한 처방 관계 분석 고찰

<sup>1</sup>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한의학과

<sup>2</sup>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 <sup>3</sup>제한동의학술원

<sup>4</sup>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sup>5</sup>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

장희원<sup>1, 4</sup> · 송지청<sup>2, 3</sup> · 엄동명<sup>4, 5</sup>\*

### A Study on Analyzing the relationship of formulae with Comparing the components of formulae.

Jang Heewon<sup>1, 4</sup> · Song Jichung<sup>2, 3</sup> · Eom Dongmyung<sup>4, 5</sup>\*

<sup>1</sup>Dept.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sup>2</sup>Dept. of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sup>3</sup>Jeahan Korean Medical Academy, Daegu Haany University

<sup>4</sup>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5</sup>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 In order to select the key factors of formulae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formulae with comparing these factors.

**Methods** : We selected the five key factors that the source, the name of formula, the efficacy, the constituent herbs, and the capacity of herbs. When we compared between two formulae with five key factors, there was 32 cases. So we investigated the example which is corresponded to each cases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formulae.

**Results** : Among the 32 cases, analyzed two formulae was same in 8 cases, altered from same formula in different ways in 14 cases, and different with each other in 20 cases.

**Conclusions** : These five key factors play a decisive role to comparing formulae and analyzing the relationship of them. So these factors and the relationship of formulae would be considered to construct formula ontology.

**Key Words** : factors of formulae, formula analysis, formula comparison, formula ontology.

## I. 서 론

\* Corresponding Author : Eom Dongmyung, 312 Prof.  
Graduate of Korean Medicine Building,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ro, Iksan City, Jeonbuk, ROK.  
E-mail: haksan@wku.ac.kr  
Tel: 063-850-6941 Fax: 063-842-4328

한약 처방은 한의학의 중요한 치료 수단 중 한

Received(27 April 2015), Revised(11 May 2015),  
Accepted(12 May 2015).

축을 담당하여 한의학의 이론 및 임상 경험이 축적, 발전됨에 따라 처방의 종류와 쓰임 역시도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이에 현재까지 『中醫方劑大辭典』에 수록된 처방의 개수만 해도 96592개<sup>1)</sup>에 이르게 되는데,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개개인의 병증에 맞추어 가감된 처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존하는 처방의 가짓수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처방이 모두 제각기 다른 처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 서로 전혀 다른 처방도 존재할 수 있겠으나 이명 동방, 동명 이방, 가감방, 주치가 확장된 처방 등 처방들 간에 다양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처방을 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방 각 조문의 내용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처방의 전사, 변화, 확장 등 처방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처방을 서로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여 그 관계를 추론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처방을 비교하고, 이에 따라 두 처방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처방들을 손쉽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방 데이터베이스와 온톨로지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인데,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의 구성을 위해서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처방을 비교하고 관계성을 분석하는 일은 중요하다.

처방들 간의 관계 분석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김<sup>2)</sup>의 연구에서 방제를 본초의 집합으로 인식하여 본초의 조합 관계를 바탕으로 같은 조합 관계를 포함한 처방들을 類方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sup>3)</sup>의 연구에서는 처방을 이루고 있는 구성본초 각각을 객체로 지정하여 이들의 부분 집합 혹은 이들을 포함하는 상위 집합을 검색, 확장된 처방과 원처방의 관계를 계보로 나타내는 방식을 제시

하였다. 한편 김<sup>4)</sup>의 연구에서는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처방 관계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처방을 이루는 다수의 구성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비교하여 각 경우에 대한 처방간의 관계를 분석해내는 방식의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처방을 이루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핵심이 되는 5가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구성요소의 차이에 따라 두 처방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해 실제 처방례를 바탕으로 각각의 경우에 대한 가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본 론

한약 처방은 (1) 출전 (2) 처방명 (3) 주치병증 (4) 구성 약재 (5) 포제법 (6) 약재 용량 (7) 복용법 (8) 복용량 (9) 복용시간 (10) 복용횟수 (11) 복용금지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醫宗金監·刪補名醫方論卷八』에 수록된 처방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5)</sup>

『<sup>(1)</sup>醫宗金監·刪補名醫方論卷八』 【<sup>(2)</sup>理中湯丸】 <sup>(3)</sup>治中氣不運, 腹中不實, 口失滋味, 病久不食, 藏府不調, 與傷寒直中太陰, 自利不渴, 寒多而嘔等證. <sup>(4)</sup>人參<sup>(6)</sup>三兩, 白朮三兩, 甘草三兩, 乾薑三兩. 右四味, <sup>(5)</sup>搗篩爲末, 蜜丸如雞子黃大, 以沸湯數合和一丸, 研碎, 溫服之. 日三四枚, <sup>(9)</sup>夜二枚; 腹中未熱, 益至三四丸. 然不及湯, 湯法以四物依兩數切, 用水八升, 煮取三升, 去滓, <sup>(8)</sup>溫服一升, <sup>(10)</sup>日三服. 若臍上築者, 腎氣動也, 去朮, 加桂四兩. 多吐者, 去朮, 加生薑三兩. 下多者, 還用朮. 悸者, 加茯苓二兩. 渴欲得水者, 加朮, 足前成四兩半. 腹中痛者, 加入參, 足前成四兩半. 寒者, 加乾薑, 足前成四兩半. 腹滿者, 去朮, 加附子一枚. <sup>(7)</sup>服湯後如食頃, 飲熱粥一升許, <sup>(11)</sup>微自溫, 勿發衣被.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처방의 차이를 결

1) 南京中醫學院, 彭懷仁 主編. 中醫方劑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2) 김정훈, 이병욱. DB를 활용한 方劑의 類方分析 방법 설계.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1). pp.143-151.  
3) 김현호 외 4인. 객체지향형 처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처방 검색 프로그램의 설계 및 개발.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1. 17(2). pp.73-83.

4) 김상균 외 6인. 약제와 처방 온톨로지 기반 추론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22(3). pp.97-105.  
5) 吳謙 等 編著. 問志安 等 校注. 醫宗金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390.

정짓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처방이 서로 다른지, 같은지, 혹은 가감방인지를 감별하는데 사용되는 주된 요소는 (1) 출전 (2) 처방명 (3) 주치병증 (4) 구성약재 (5) 약재 용량 등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처방을 비교함에 있어서 이 다섯 가지 요소만 비교해 보아도 두 처방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감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처방과 출전, 처방명, 주치병증, 구성약재가 같은데 약재 용량만 다른 처방이 있다고 하면, 원처방의 가감방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앞서 언급한 5가지를 중심으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처방 구성 요소 간의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해 보면 총 32가지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는지 실제 처방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다만, 구성 약재와 약재 용량을 비교하는데 薑三棗二와 같이 관용적 표현으로 서술되는 경우, 처방의 약재 구성과는 별도로 포제법 및 복용법에 대한 서술인 경우 등은 약재 자체의 효능 특성상 君藥이나 臣藥에 포함되지 않는 한 실제 처방의 주된 효능과 구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성약재 및 약재용량의 분석에서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출전, 처방명, 주치병증, 구성약재, 약재용량이 모두 동일한 경우

『證治準繩』【天門冬丸】 治婦人喘嗽，手足煩熱，骨蒸寢汗，口乾引飲，面目浮腫。天門冬十兩，去心，麥門冬八兩，去心，生地黄三斤，取汁爲膏。<sup>6)</sup>

『證治準繩』【天門冬丸】 治婦人喘，手足煩熱，骨蒸寢汗，口乾引飲，面目浮腫。天門冬十兩，去心秤，麥門冬去心，八兩，生地黄三斤，取汁熬膏。<sup>7)</sup>

위의 두 처방은 처방의 모든 핵심 구성요소가 일치하므로 동일한 처방에 해당한다.

2. 출전만 다르고 처방명, 주치병증, 구성약재, 약재용량이 모두 동일한 경우

『校注婦人良方』【養心湯】 治心血虛，驚悸怔忡不寧，或盜汗無寐，發熱煩躁。黃芪炒，白茯苓，茯神去木，半夏麩，當歸酒拌，川芎各半兩，辣桂去皮，柏子仁，酸棗仁炒，五味子杵，炒，人蔘各三錢，甘草炙四錢<sup>8)</sup>

『證治準繩』【養心湯】 治心血虛，驚悸怔忡不寧，或盜汗無寐，發熱煩躁。黃芪炒，白茯苓，茯神去木，半夏麩，當歸酒拌，川芎各半兩，辣桂去皮，柏子仁，酸棗仁炒，五味子杵炒，人蔘角三錢，甘草炙，四錢<sup>9)</sup>

위의 두 처방의 출전은 각각 『校注婦人良方』과 『證治準繩』으로 다르나, 처방명을 비롯하여 주치병증, 구성약재, 약재용량이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두 처방은 사실상 동일한 처방으로 볼 수 있으며, 최초 출전에 대한 전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3. 처방명만 다르고 출전, 주치병증, 구성약재, 약재용량이 모두 동일한 경우

『證治準繩』【破血散瘀湯】 治乘馬跌傷，損其脊骨，惡血流于脇下，其痛苦楚，不能轉側，妨于飲食。羌活，防風，中桂各一錢，蘇木一錢五分，連翹，當歸尾，柴胡各二錢，水蛭三錢，炒煙盡，別研，麝香少許，別研。<sup>10)</sup>

『證治準繩』【破血消痛湯】 治乘馬損傷，跌破脊骨，惡血流下，脇下甚痛，若楚不能轉側，妨于飲食。羌活，防風，官桂各一錢，蘇木一錢半，柴胡，連翹，當歸梢各二錢，麝香少許，另研，水蛭三錢，炒去煙盡，另研。<sup>11)</sup>

8) 陳自明 著. 薛立齋 校注. 校注婦人良方(全)(卷三). 서울. 宇宙醫藥出版社. 1975. p.54.

9) 王肯堂 著. 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064.

10) 王肯堂 著. 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證治準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10.

6) 王肯堂 著. 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證治準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66.

7) 王肯堂 著. 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證治準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093.

위의 두 처방은 【破血散疼湯】과 【破血消痛湯】이지만, 동일한 출전, 구성약재, 약재용량으로 되어 있으며, 주치병증의 표현도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두 처방은 사실상 동일한 처방이거나, 한 쪽이 다른 쪽의 이명인 경우에 해당한다.

4. 주치병증만 다르고 출전, 처방명, 구성약재, 약재용량이 모두 동일한 경우

『東醫寶鑑』【木香檳榔丸】 治疎導三焦, 快氣潤腸. 半夏麴, 皂角, 酥灸, 去皮弦子, 郁李仁, 去殼, 另末, 各二兩, 木香, 檳榔, 枳殼, 杏仁, 青皮, 各一兩.<sup>12)</sup>

『東醫寶鑑』【木香檳榔丸】 治疎導三焦, 通利大小便, 下濕痰凝滯, 則脹滿自消, 最爲神效. 半夏麴, 皂角, 酥灸, 去皮弦子, 郁李仁, 各二兩, 木香, 檳榔, 枳殼, 杏仁麴炒, 青皮, 各一兩.<sup>13)</sup>

위의 두 처방은 동일한 출전과 처방명, 구성약재 및 약재용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치병증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병증에 대한 치료기전은疎導三焦로 동일하며, 전자의 【木香檳榔丸】에 기술된 快氣潤腸의 치료 효과는 후자의 【木香檳榔丸】에 기술된 通利大小便에도 일정정도 내포되어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만 下濕痰凝滯, 則脹滿自消의 효과가 기술되어 있는데, 앞의 내용으로 볼 때 이는 기존의 주치병증 서술에 추가된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처방은 사실상 동일 처방으로서 주치병증이 확장된 경우에 해당한다.

5. 구성약재만 다르고 출전, 처방명, 주치병증, 약재용량이 모두 동일한 경우

『證治準繩』【半夏湯】(1) 治膽腑實熱, 精神恍惚, 寒濕泄瀉, 或寢汗憎風, 善太息. 半夏一錢五分,

黃芩, 遠志, 各一錢, 生地黄, 二錢, 秫米, 一合, 酸棗仁, 三錢, 炒, 宿姜, 一錢五分.<sup>14)</sup>

『證治準繩』【半夏湯】(2) 治膽腑實熱, 精神恍惚, 寒熱泄瀉, 或寢汗憎風, 善太息. 半夏一錢五分, 黃芩, 遠志去骨, 各一錢, 生地黄二錢, 秫米一合, 酸棗仁炒, 三錢, 縮砂仁一錢五分.<sup>15)</sup>

위의 두 처방은 동일한 처방명과 주치병증이 한 서적에 중복하여 수록되어 있다. 주치병증을 살펴보면, ‘寒濕泄瀉’와 ‘寒熱泄瀉’의 차이는 있으나 서술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동일한 조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성약제에서 전자의 【半夏湯】에 기재된 宿姜이 후자에서는 縮砂仁으로 바뀌어 있다. 따라서 두 처방은 동일한 처방에 기반을 둔 가감방에 해당한다.

6. 약재용량만 다르고 출전, 처방명, 주치병증, 구성약재가 모두 동일한 경우

『證治準繩』【養心湯】 治心血虛怯驚癇, 或驚悸怔忡, 盜汗無寐, 發熱煩躁. 黃芪, 白茯苓, 茯神去木, 半夏麴, 當歸, 川芎, 辣桂, 柏子仁, 酸棗仁, 五味子, 人蔘角三錢, 甘草炒, 四錢.<sup>16)</sup>

『證治準繩』【養心湯】 治心血虛, 驚悸怔忡不寧, 或盜汗無寐, 發熱煩躁. 黃芪炒, 白茯苓, 茯神去木, 半夏麴, 當歸酒拌, 川芎各半兩, 辣桂去皮, 柏子仁, 酸棗仁炒, 五味子杵炒, 人蔘角三錢, 甘草灸, 四錢.<sup>17)</sup>

위의 두 처방은 출전과 처방명, 구성약재가 동일하며 주치병증의 표현과 약재 용량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주치병증을 살펴보면 ‘治心血虛怯驚癇, 或驚悸怔忡’과 ‘治心血虛, 驚悸怔忡不寧’으로 다

11) 王肯堂 著. 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證治準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371.

12)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p.154-155.

13)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504.

14) 王肯堂 著. 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證治準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72.

15) 王肯堂 著. 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證治準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065.

16) 王肯堂 著. 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519.

17) 王肯堂 著. 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064.

소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心血虛로 인한 驚悸怔忡을 치료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이고, 이후의 서술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주치병증은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약재 용량에 있어서 전자의 경우는 甘草만 四錢이고 나머지는 각 三錢으로 서술된 반면, 후자의 경우는 黃芪·白茯苓·茯神·半夏麴·當歸·川芎의 용량이 半兩으로 바뀌어 있다. 따라서 두 처방은 동일한 처방에 기반을 둔 가감방에 해당한다.

7. 출전, 처방명이 다르고 주치병증, 구성약재, 약재용량이 동일한 경우

『蘭室秘藏』【升陽除濕湯】治女子漏下惡血，月事不調，或暴崩不止，多下水漿之物。皆由飲食不節，或勞倦形體，或素有心氣不足，因飲食勞倦，致令心火乘脾。其人必怠惰嗜臥，四肢不收，困倦乏力，無氣以動，氣短上氣，逆急上衝，其脈緩而弦急，按之洪大，皆中之下，得之脾土受邪也。當歸酒洗，獨活已上各五分，蔓荊子七分，防風，炙甘草，升麻，藁本已上各一錢，柴胡，羌活，蒼朮，黃芪已上各一錢五分。<sup>18)</sup>

『醫學正傳』【調經升陽除濕湯】治女子漏下惡血，月事不調，或暴崩不止，多下水漿之物。皆因飲食不節，勞倦所傷，或素有心氣不足，致令心火乘脾，必怠惰嗜臥，困倦乏力，氣短氣急。當歸酒洗，獨活各半錢，蔓荊子七分，防風，炙甘草，升麻，藁本各一錢，柴胡，羌活，蒼朮，黃芪各一錢半。<sup>19)</sup>

위의 두 처방은 각기 다른 서적에, 다른 이름으로 수록된 처방이지만 주치병증의 표현이 거의 동일하다. 『蘭室秘藏』에서 ‘無氣以動，氣短上氣，逆急上衝’으로 서술된 부분이 『醫學正傳』에서는 ‘氣短氣急’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때, 『醫學正傳』의 문장은 『蘭室秘藏』에 수록된 것과 동일한 문장을 축약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성약재와 약재용량도 내용뿐 아니라 문장의 표현 자체가 거

의 동일하다. 다만 처방명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처방은 이명을 가진 동일한 처방에 해당한다.

8. 출전, 주치병증이 다르고 처방명, 구성약재, 약재용량이 동일한 경우

『類證治裁』【歸脾湯】治思慮太過，鬱損心脾而成勞者，宜歸脾湯。人參，焦朮，茯神，棗仁，龍眼各二錢，炙芪錢半，當歸，遠志各一錢，木香，甘草各五分。<sup>20)</sup>

『醫方集解』【歸脾湯】治思慮過度，勞傷心脾，怔忡健忘，驚悸盜汗，發熱體倦，食少不眠。或脾虛不能攝血，致血妄行，及婦人經帶。人參，白朮土炒，茯神，棗仁炒，龍眼肉二錢，黃芪炙，錢半，當歸酒洗，遠志一錢，木香，甘草炙，五分。<sup>21)</sup>

위의 두 처방은 출전이 『類證治裁』와 『醫方集解』로 각기 다르며, 주치병증도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나, 다른 구성요소는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다. 주치병증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면, ‘治思慮太過，鬱損心脾而成勞者’와 ‘治思慮過度，勞傷心脾’의 표현은 다소 다르지만 思慮太過로 인한 心脾의 勞傷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怔忡健忘，驚悸盜汗，發熱體倦，食少不眠’과 같이 앞에서 언급한 병리 기전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병증의 표현이 서술되어 있으며, 더불어서 ‘或脾虛不能攝血，致血妄行，及婦人經帶’와 같이 또 다른 병리기전과 증상을 서술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후자의 주치병증은 전자의 주치병증을 포괄하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효능과 병증을 서술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약물 및 약물 용량과 처방명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두 처방은 사실상 동일한 처방이거나 후자의 경우 주치병증이 확장된 경우에 해당한다.

18) 天津科學技術出版社 總纂. 金元四大家醫學全書(上). 河北省.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p.636-637.

19) 何清湖, 周慎 主編. 中華醫書集成(第25冊;綜合類4;醫學正傳).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250.

20) 何清湖, 周慎 主編. 中華醫書集成(第32冊;綜合類11;類證治裁).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p.57-58.

21) 王昂 著. 項長生 主編. 王昂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83.

9. 출전, 구성약재가 다르고 처방명, 주치병증, 약재용량이 동일한 경우

『古今醫鑑』【神解湯】 治小兒發熱，欲出痘腰痛。

柴胡一錢半，乾葛一錢，川芎八分，白茯苓八分，麻黃去節，八分，升麻八分，防風八分，甘草五分。<sup>22)</sup>

『東醫寶鑑』【神解湯】 治發熱，欲出痘而腰痛者。柴胡一錢半，乾葛一錢，麻黃，白茯苓，升麻，防風各八分，甘草五分。<sup>23)</sup>

위의 두 처방은 처방명이 같으나 다른 요소들은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주치병증을 살펴보면 ‘治小兒發熱，欲出痘腰痛’과 ‘治發熱，欲出痘而腰痛者’로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후자의 처방이 「小兒門」에 수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치병증이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성 약재에 있어서는, 전자는 川芎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川芎이 없으며, 약재의 용량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川芎을 가감한 처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처방은 동일한 처방에 기반을 둔 가감방에 해당한다.

10. 출전, 약재용량이 다르고 처방명, 주치병증, 구성약재가 동일한 경우

『丹溪心法』【養心湯】 治心虛血少，驚悸不寧。黃芪炙，白茯苓，白茯苓，半夏麴，當歸，川芎各半兩，遠志去心，薑汁炒，辣桂，柏子仁，酸棗仁炒，五味，人蔘二錢半，甘草炙，四錢。<sup>24)</sup>

『醫方類聚』【養心湯】 治心虛血少，驚惕不寧。黃芪，炙，白茯苓，茯苓，半夏麴，當歸，川芎，各半兩，遠志，取去皮薑汁淹焙，辣桂，柏子仁，酸棗仁，浸去皮隔紙炒香，北五味子，人蔘各一分，甘草炙，四錢。<sup>25)</sup>

위의 두 처방은 동일한 처방명과 주치병증, 구성 약재로 이루어져 있으나, 출전이 다르고 약재 용량도 다소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黃芪·白茯苓·白茯苓·半夏麴·當歸·川芎은 각 半兩, 遠志·薑汁·辣桂·柏子仁·酸棗仁·五味子·人蔘은 각 二錢半, 甘草는 四錢으로 되어 있으나, 후자의 경우 遠志·薑汁·辣桂·柏子仁·酸棗仁·五味子·人蔘의 용량이 각 一分으로 되어 있다. 용량이 다르기는 하지만 약재의 구성과 주치병증 및 처방명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두 처방은 동일한 처방에 기반을 둔 가감방에 해당한다.

11. 처방명, 주치병증이 다르고 출전, 구성약재, 약재용량이 동일한 경우

『東醫寶鑑』【補腎丸】 治陰虛火動，耳鳴。熟地黃·兔絲子酒製各八兩，當歸身三兩半，肉蓯蓉五兩，山茱萸二兩半，黃柏·知母並酒炒各一兩，破故紙酒炒五錢。<sup>26)</sup>

『東醫寶鑑』【八味補腎丸】 治虛勞，補腎，滋陰。熟地黃，兔絲子，各八兩，當歸身，三兩半，肉蓯蓉，五兩，山茱萸，二兩半，黃柏，知母，並酒炒各一兩，破故紙，酒炒五錢。<sup>27)</sup>

위의 두 처방은 처방명과 주치병증이 서로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주치병증을 살펴보면, ‘治陰虛火動，耳鳴’과 ‘治虛勞，補腎，滋陰’으로 다르게 서술되어 있는데 【補腎丸】은 「內景篇·耳門」에, 【八味補腎丸】은 「雜病篇·虛勞門」에 수록된 것을 참작하면, 陰虛의 병기를 치료하는 것은 동일하나 이를 기반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 각각 치료의 목표로 설정한 증상이 다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처방은 사실상 같은 처방인데 한 처방의 이름이 다른 처방의 이명임과 동시에, 주치병증이 확장된 경우에 해당한다.

22) 龔廷賢 著. 李世華 主編. 龔廷賢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357.

23)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657.

24) 金元 著. 金元四大家醫學全書(下).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341.

25) 浙江省中醫研究所, 湖州中醫院 校. 醫方類聚校本(第七

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p.545-546.

26)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233.

27)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450.

12. 처방명, 구성약재가 다르고 출전, 주치병증, 약재용량이 동일한 경우

『東醫寶鑑』【散邪湯】 治風癱初起。川芎，白芷，麻黃，白芍藥，防風，荊芥，紫蘇葉，羌活各一錢，甘草五分。<sup>28)</sup>

『東醫寶鑑』【正氣湯】 治風癱初起。柴胡，前胡，川芎，白芷，半夏，麥門冬，檳榔，草果，青皮，赤茯苓各一錢，桂枝，甘草各五分。<sup>29)</sup>

위의 두 처방은 모두 「雜病篇·痲癱門」에 수록된 처방으로, 동일하게 風癱初起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처방명이 다르고 구성 약제도 큰 차이가 있다. 구성 약제를 살펴보면, 【散邪湯】의 경우 川芎·白芷·麻黃·白芍藥·防風·荊芥·紫蘇葉·羌活·甘草로 구성되어 있고, 【正氣湯】의 경우 柴胡·前胡·川芎·白芷·半夏·麥門冬·檳榔·草果·青皮·赤茯苓·桂枝·甘草로 구성되어 있다. 川芎·白芷·甘草가 비록 동일한 용량으로 되어 있지만 이외의 구성 약제는 모두 다른 것으로 보아, 두 처방은 동일한 주치병증을 갖는 서로 다른 처방에 해당한다.

13. 처방명, 약재용량이 다르고 출전, 주치병증, 구성약재가 동일한 경우

『東醫寶鑑』【香桂散】 下死胎。桂心三錢，麝香半錢。<sup>30)</sup>

『東醫寶鑑』【桂香丸】 下死胎。肉桂一兩，麝香一錢。<sup>31)</sup>

위의 두 처방은 처방명과 약재 용량은 다르지만 주치병증과 구성약제는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처방명을 살펴보면 【香桂散】과 【桂香丸】으로 散과 丸의 제형이 서로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구성 약제의 경우, 【香桂散】의 桂心과 【桂香丸】의 肉桂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용량에 있어서는 【香桂散】에서는 桂心이 三錢, 麝香이 半錢인데 【桂香丸】에서는 각각 一兩, 一錢으로 용량이 바뀌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처방명과 약재 용량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보면 서로 다른 처방일 가능성도 있고, 주치병증과 구성약제의 동일성에 초점을 맞춰보면 동일한 처방을 기반으로 한 가감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처방은 동일한 주치병증을 갖는 서로 다른 처방이거나 또는 동일한 처방에 기반을 둔 가감방에 해당한다.

14. 주치병증, 구성약재가 다르고 출전, 처방명, 약재용량이 동일한 경우

『東醫寶鑑』【加味四物湯】 治血虛眩暈，卒倒，不可艾灸，驚哭，叫動，動則乘虛而死矣。當歸，川芎，白芍藥，生地黃，熟地黃，黃芪，人蔘，白朮，陳皮，白茯苓，荊芥穗，甘草，各七分。<sup>32)</sup>

『東醫寶鑑』【加味四物湯】 治血虛陰火上衝頭痛。當歸，川芎，生乾地黃酒炒，黃柏酒炒，知母酒炒，黃芩酒炒，黃連酒炒，蔓荊子，梔子炒，各七分。<sup>33)</sup>

위의 두 처방은 처방명이 같지만 주치병증과 구성약제는 차이가 있다. 먼저 주치병증을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治血虛眩暈，卒倒，不可艾灸，驚哭，叫動，動則乘虛而死矣’라 하여 血虛로 인한 다수의 증상을 서술한 반면에, 후자의 경우 ‘治血虛陰火上衝頭痛’이라 하여 같은 血虛로 인한 증상이라 하더라도 치료 목표로 두고 있는 증상이 다르다. 구성 약제에 있어서는, 전자의 경우 當歸·川芎·白芍·生地黃·熟地黃·黃芪·人蔘·白朮·陳皮·白茯苓·荊芥穗·甘草의 12개 약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當歸·川芎·生地黃 3가지 약제만 동일한 용량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 외에는 모두 다른 약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두 처방은 서로 다른 처방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처방

28)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520.

29)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520.

30)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614.

31)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614.

32)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113.

33)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205.

명과 공통된 구성 약재에 초점을 맞춰보면 四物湯의 서로 다른 가감방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따라서 두 처방은 서로 다른 처방이거나 또는 동일한 처방에 기반을 둔 가감방에 해당한다.

15. 주치병증, 약재용량이 다르고 출진, 처방명, 구성약재가 동일한 경우

『東醫寶鑑』【錢氏安神丸】 補心虛, 朱砂, 水飛, 各一兩, 麥門冬, 馬牙硝, 白茯苓, 山藥, 寒水石, 甘草, 各五錢, 龍腦, 二分半.<sup>34)</sup>

『東醫寶鑑』【錢氏安神丸】 治急驚風, 及心熱驚啼. 麥門冬, 馬牙硝, 白茯苓, 山藥, 寒水石, 甘草各五錢, 朱砂三錢, 龍腦二字.<sup>35)</sup>

위의 두 처방은 주치병증과 약재용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주치병증을 살펴보면, ‘補心虛’와 ‘治急驚風, 及心熱驚啼’로 치료 대상이 되는 병기가 서로 다르다. 약재용량을 살펴보면, 구성약재는 동일해도 전자의 경우 朱砂 一兩, 麥門冬·馬牙硝·白茯苓·山藥·寒水石·甘草 各五錢, 龍腦 二分半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자의 경우 朱砂 三錢, 龍腦 二字로 바뀌어 있다. 약재 용량의 변화를 처방명과 구성 약재의 동일성을 참작하면 동일한 처방에 대해 가감한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고, 치료 병기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면 서로 다른 처방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따라서 두 처방은 서로 다른 처방이거나 또는 동일한 처방에 기반을 둔 가감방에 해당한다.

16. 구성약재, 약재용량이 다르고 출진, 처방명, 주치병증이 동일한 경우

『聖濟總錄』【黃耆湯】(1) 治熱毒風瘡疥. 黃耆剉, 黃連去須, 大黃剉炒, 芎藭, 甘草炙各一兩, 鶴虱, 紅藍花炒各半兩, 連翹, 防風去叉, 羌活去蘆頭, 牽牛子炒各一兩半.<sup>36)</sup>

『聖濟總錄』【黃耆湯】(2) 治瘡, 退風熱. 黃耆剉一兩半, 生地黃四兩, 甘草炙剉, 芎藭, 麥門冬去心焙, 黃芩去黑心各一兩半, 石膏碎, 芎藭, 大黃剉炒, 人參, 當歸切焙一兩, 半夏薑汁製半兩.<sup>37)</sup>

위의 두 처방은 각기 다른 편에 수록된 동일한 이름의 『聖濟總錄』 처방이다. 문장상의 표현은 다소 다르지만 주치병증은 風熱로 인한 瘡를 동일하게 치료 목표로 삼고 있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성약재와 약재용량은 표1(Table 1.)과 같은 차이가 있다.

Table 1. Comparison of 【Hwanggitang】(1) with 【Hwanggitang】(2)

표 1. 【黃耆湯】(1)과 【黃耆湯】(2) 비교

|        | 【黃耆湯】(1) | 【黃耆湯】(2) |
|--------|----------|----------|
| 黃芪     | 一兩       | 一兩半      |
| 黃連     | 一兩       | -        |
| 大黃     | 一兩       | 一兩       |
| 川芎(芎藭) | 一兩       | 一兩       |
| 甘草     | 一兩       | 一兩半      |
| 鶴虱     | 一兩半      | -        |
| 紅藍花    | 一兩半      | -        |
| 連翹     | 一兩半      | -        |
| 防風     | 一兩半      | -        |
| 羌活     | 一兩半      | -        |
| 牽牛子    | 一兩半      | -        |
| 生地黃    | -        | 四兩       |
| 芎藭     | -        | 一兩半      |
| 麥門冬    | -        | 一兩半      |
| 黃芩     | -        | 一兩半      |
| 石膏     | -        | 一兩       |
| 人參     | -        | 一兩       |
| 當歸     | -        | 一兩       |
| 半夏     | -        | 半兩       |

이를 통해 볼 때, 처방명과 주치병증이 동일하면서 구성약재와 약재용량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일한 처방에 대한 가감방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구성약재와 약재용량이 크게 상이하여 이름만 동일

34)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p.141-142.

35)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640.

36) 趙佶 編. 聖濟總錄(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244.

37) 趙佶 編. 聖濟總錄(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1549.

한 서로 다른 처방일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두 처방은 서로 다른 처방이거나 또는 동일한 처방에 기반을 둔 가감방에 해당한다.

17. 출전, 처방명, 주치병증이 다르고 구성약재, 약재용량이 동일한 경우

『金匱鈞玄』【黃連化痰丸】 痞，食積兼濕。黃連，一兩，陳皮，五錢，吳茱萸，酒浸，一錢，半夏，一兩半。右爲末，入桃仁，二十四箇。<sup>38)</sup>

『醫學入門』【四味萸連丸】 吞酸。治痰火挾痰。黃連，一兩，吳茱萸，一錢，桃仁，二十四枚，陳皮，五錢，半夏，一兩半。<sup>39)</sup>

위의 두 처방은 각기 다른 서적에 서로 다른 이름으로 수록된 처방이며, 주치병증에 있어서도 치료 목표가 되는 병리기전이 서로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구성약재와 약재용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조문에 쓰인 주치병증을 모두 치료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처방은 사실상 같은 처방인데 한 처방의 이름이 다른 처방의 이명임과 동시에, 주치병증이 확장된 경우에 해당한다.

18. 출전, 처방명, 구성약재가 다르고 주치병증, 약재용량이 동일한 경우

『仁齋直指』【益腎散】 治腎虛耳聾。磁石，制度如前，巴戟，大川椒，開口者，各一兩，沉香，石菖蒲，各半兩。<sup>40)</sup>

『東醫寶鑑』【燒腎散】 治腎虛耳聾。磁石火煨醋淬七次，附子炮，川椒炒，巴戟，各一兩。<sup>41)</sup>

위의 두 처방은 각기 다른 서적에 다른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동일한 주치병증을 가진 처방이다. 구성 약재와 약재 용량을 보면, 두 처방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磁石, 巴戟, 川椒 세 가지 약물은 동일한 용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의 약물들은 구성과 용량이 다르다. 주치병증이 동일하면서 동일한 용량의 약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처방을 가감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구성약재가 다르고 출전과 처방명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처방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두 처방은 서로 다른 처방이거나 또는 동일한 처방에 기반을 둔 가감방에 해당한다.

19. 출전, 처방명, 약재용량이 다르고 주치병증, 구성약재가 동일한 경우

『東醫寶鑑』【河間生地黄散】 治鬱熱衄，吐咯，唾血。枸杞子，柴胡，黃連，地骨皮，天門冬，白芍藥，黃芩，黃芪，生地黄，熟地黄，甘草，各七分。<sup>42)</sup>

『醫學正傳』【生地黄散】 治鬱熱衄血，咯血，吐血等證。枸杞子，柴胡，黃連，地骨皮，天門冬，白芍藥，甘草，黃芩，黃芪，生地黄，熟地黄各五分。<sup>43)</sup>

위의 두 처방을 살펴보면 먼저, 출전과 처방명에 있어서는 『東醫寶鑑』에서는 ‘河間生地黄散’으로, 『醫學正傳』에서는 ‘生地黄散’으로 기록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치 병증에 있어서는 河間生地黄散의 경우 ‘治鬱熱衄，吐咯，唾血’로, 生地黄散의 경우 ‘治鬱熱衄血，咯血，吐血等證’으로 다소 다르게 서술되어 있으나, 표현의 차이일 뿐 사실상 동일한 주치병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성약재와 용량에 있어서는 두 처방 모두 枸杞子·柴胡·黃連·地骨皮·天門冬·白芍藥·黃芩·黃芪·生地黄·熟地黄·甘草 11개 약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河間生地黄散은 모든 약재의 용량이 七分인 반면, 生地黄散은 五分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두 처방은 주치병증과 약재 구성이 동일하면서 약

38) 李漢求 編. 中國醫學大系(14).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715.

39) 李梴 編著. 原本編註醫學入門(外集卷二).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284.

40) 李漢求 編. 中國醫學大系(12).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p.399-400.

41)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235.

42)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110.

43) 何清湖, 周慎 主編. 中華醫書集成(第25冊;綜合類4;醫學正傳).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183.

재 용량만 다소 다르기 때문에 가감방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출전과 처방명이 다르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서로 다른 처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처방은 서로 다른 처방이거나 또는 동일한 처방에 기반을 둔 가감방에 해당한다.

20. 출전, 주치병증, 구성약재가 다르고 처방명, 약재용량이 동일한 경우

『本草綱目』【大造丸】若無子及多生女，月水不調，小產難產人服之，必主有子。危疾將絕者，一二服，可更活一二日。其補陰之功極重，百發百中。久服耳聰目明，鬚髮烏黑，延年益壽，有奪造化之功，故名大造丸。用紫河車一具，男用女胎，女用男胎，初生者，米泔洗淨，新瓦焙乾研末，或以淡酒蒸熟，搗晒研末，氣力尤全，且無火毒，敗龜版，年久者，童便浸三日，酥炙黃，二兩，或以童便浸過，石上磨淨，蒸熟晒研，尤妙，黃蘗，去皮，鹽酒浸，炒，一兩半，杜仲，去皮，酥炙，一兩半，牛膝，去苗，酒浸，晒，一兩二錢，肥生地黃，二兩半，入砂仁六錢，白茯苓二兩，絹袋盛，入瓦罐，酒煮七次，去茯苓砂仁不用，杵地黃爲膏，聽用，天門冬，去心，麥門冬，去心，人參，去蘆，各一兩二錢，夏月加五味子七錢。<sup>44)</sup>

『景岳全書』【大造丸】此方治陰虛血熱，能使耳目聰明，鬚髮烏黑，有奪造化之功，故名大造。亦治心風失志，虛勞水虧等證。紫河車，頭生壯盛者一具，以米泔洗淨，少加酒，蒸極爛搗膏，以山藥末收，烘乾用；或洗淨即以新瓦上焙乾用，敗龜板，自死者，酥炙，二兩，黃柏，鹽酒炒，兩半，杜仲，酥炙，兩半，牛膝，酒洗，一兩二錢，天門冬，麥門冬，各一兩二錢，熟地，二兩半，用砂仁末六錢，茯苓二兩一塊，同稀絹包，入好酒煮七次，去茯苓不用。夏加五味子七錢。<sup>45)</sup>

위의 두 처방은 각기 다른 서적에 수록된 동일한 이름의 처방이다. 주치병증을 살펴보면 ‘耳目聰明，鬚髮烏黑，有奪造化之功，故名大造’라 하여 처방명

과 관련된 주치에 대해 동일하게 서술된 부분이 있으나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치료 목표가 되는 증상에 차이가 있다. 구성약재와 약재 용량에 있어서는, 『本草綱目』의 【大造丸】에만 人參 한 가지 약물이 더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0가지 약물의 구성과 용량은 동일하다. 같은 처방명을 가진 처방으로 다수의 약물의 용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本草綱目』의 【大造丸】은 人參이 가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치료의 목표가 되는 증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처방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따라서 두 처방은 서로 다른 처방이거나 또는 동일한 처방에 기반을 둔 가감방에 해당한다.

21. 출전, 주치병증, 약재용량이 다르고 처방명, 구성약재가 동일한 경우

『東醫寶鑑』【洗肺散】治鼻中生瘡。片苓酒炒二錢，五味子，天門冬，麥門冬，半夏，杏仁，各一錢，甘草五分。<sup>46)</sup>

『丹溪心法附餘』【洗肺散】治咳嗽痰盛，肺氣不利。黃芩二錢，半夏三錢，天門冬去心，麥門冬去心，五味子各一兩半，甘草半錢，杏仁去皮尖。<sup>47)</sup>

위의 두 처방은 【洗肺散】으로 처방명은 동일하지만 출전이 다르고, 주치병증에 있어서도 ‘治鼻中生瘡’과 ‘治咳嗽痰盛，肺氣不利’로 서로 다르다. 구성약재는 片苓(黃芩)·五味子·天門冬·麥門冬·半夏·杏仁·甘草 7가지로 동일하지만, 전자의 경우 片苓 三錢，甘草 五分，나머지 약재들은 一錢으로 되어 있는데, 후자의 경우 黃芩 二錢，半夏 三錢，天門冬·麥門冬·五味子 各一兩半，甘草 半錢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두 처방은 주치병증과 약재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처방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처방명과 구성 약재가 동일하면서 약재 용량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동일 처방의 가감방으로도 판단

44) 李漢求 編. 中國醫學大系(42).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p.541-542.

45) 李漢求 編. 中國醫學大系(46).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634.

46)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239.

47) 朱震亨 著. 方廣 編注. 新編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1980. p.215.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처방은 서로 다른 처방이거나 또는 동일한 처방에 기반을 둔 가감방에 해당한다.

22. 출전, 구성약재, 약재용량이 다르고 처방명, 주치병증이 동일한 경우

『古今醫鑑』【三補枳朮丸】 化痰清熱，健胃補脾，消食順氣。白朮土炒，二兩，陳皮去白，一兩，枳實麩炒，一兩，黃連薑炒，五錢，黃芩酒炒，五錢，黃柏鹽炒，一兩，貝母去心，八錢，白茯苓五錢，神麩炒，五錢，山楂去核，五錢，麥芽炒，三錢，香附醋炒，五錢，砂仁一錢，桔梗二錢，連翹二錢，甘草炙，三錢。<sup>48)</sup>

『東醫寶鑑』【三補枳朮丸】 補脾胃，化痰，清熱，消食，順氣。白朮，二兩，陳皮，去白，枳實，各一兩，貝母，八錢，黃連，黃芩，並酒炒，黃柏，鹽水炒，白茯苓，神麩，山查肉，各五錢，麥芽，香附子，醋炒，各三錢，縮砂，一錢<sup>49)</sup>

위의 두 처방은 출전은 다르지만 처방명은 【三補枳朮丸】으로 동일하다. 또한 주치 병증에 있어서는 ‘化痰清熱，健胃補脾，消食順氣’와 ‘補脾胃，化痰，清熱，消食，順氣’로 다소 다르게 서술되어 있으나 순서만 바뀌어 있을 뿐, 동일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약재와 용량을 살펴보면 표2(Table 2.)와 같은 차이를 보인다.

Table 2. Comparison of 【Sambojichulhwan】 in 『Gogeumyigam』 with 【Sambojichulhwan】 in 『Dongyibogam』

표 2. 『古今醫鑑』【三補枳朮丸】과 『東醫寶鑑』【三補枳朮丸】 비교

|    | 『古今醫鑑』<br>【三補枳朮丸】 | 『東醫寶鑑』<br>【三補枳朮丸】 |
|----|-------------------|-------------------|
| 白朮 | 二兩                | 二兩                |
| 陳皮 | 一兩                | 一兩                |
| 枳實 | 一兩                | 一兩                |
| 黃連 | 五錢                | 五錢                |

|       |    |    |
|-------|----|----|
| 黃芩    | 五錢 | 五錢 |
| 黃柏    | 一兩 | 五錢 |
| 貝母    | 八錢 | 八錢 |
| 白茯苓   | 五錢 | 五錢 |
| 神麩    | 五錢 | 五錢 |
| 山楂    | 五錢 | 五錢 |
| 麥芽    | 三錢 | 三錢 |
| 香附    | 五錢 | 三錢 |
| 砂仁/縮砂 | 一錢 | 一錢 |
| 桔梗    | 二錢 | -  |
| 連翹    | 二錢 | -  |
| 甘草    | 三錢 | -  |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두 처방은 처방명과 주치병증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처방의 가감방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처방명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출전도 다르고, 약재 구성과 용량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서로 다른 처방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따라서 두 처방은 서로 다른 처방이거나 또는 동일한 처방에 기반을 둔 가감방에 해당한다.

23. 처방명, 주치병증, 구성약재가 다르고 출전, 약재용량이 동일한 경우

『方藥合編』【雙補丸】 平補氣血，不燥不熱。熟地黃，免絲子，各八兩。<sup>50)</sup>

『方藥合編』【斑龍丸】 延年益壽。鹿角膠，鹿角霜，免絲子，栝子仁，熟地黃，各八兩，白茯苓，破古紙，各四兩。<sup>51)</sup>

위의 두 처방을 살펴보면, 【斑龍丸】의 경우 【雙補丸】에 비해 5가지 약물이 더 추가되어 있으나 두 처방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熟地黃과 免絲子 는 모두 各八兩으로 동일한 용량이 쓰이고 있어서, 구성약재가 다르지만 약재용량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두 약물이 모두 君藥에 해당하여 【斑龍丸】을 【雙補丸】의 가감방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

48) 龔廷賢 著. 李世華 主編. 龔廷賢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1198-1199.

49)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436.

50)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27).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291.

51)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27).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p.304-305.

나, 【斑龍丸】의 경우 그 외에 다수의 약제가 君藥과 동일한 용량으로 쓰이고 있으며, 주치병증도 달라 서로 다른 처방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두 처방은 서로 다른 처방이거나 또는 동일한 처방에 기반을 둔 가감방에 해당한다.

24. 처방명, 주치병증, 약재용량이 다르고 출전, 구성약제가 동일한 경우

『東醫寶鑑』【對金飲子】 治酒食傷, 和胃消痰. 陳皮三錢, 厚朴, 蒼朮, 甘草各七分.<sup>52)</sup>

『東醫寶鑑』【平胃散】 治脾胃不和, 不思飲食, 心腹脹痛, 嘔噦惡心, 噫氣吞酸, 面黃肌瘦, 怠惰嗜臥, 常多自利, 或發霍亂, 及五噎八痞, 膈氣反胃等證. 蒼朮二錢, 陳皮一錢四分, 厚朴一錢, 甘草六分.<sup>53)</sup>

위의 두 처방은 『東醫寶鑑』의 서로 다른 門에 수록된 처방이다. 陳皮, 厚朴, 蒼朮, 甘草 네 가지 동일한 약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약재용량의 구성 비율이 다르고, 처방명과 주치병증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처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약제로 구성되면서 약재 용량이 다른 점을 볼 때, 동일한 처방에 대한 가감방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두 처방은 서로 다른 처방이거나 또는 동일한 처방에 기반을 둔 가감방에 해당한다.

25. 처방명, 구성약제, 약재용량이 다르고 출전, 주치병증이 동일한 경우

『東醫寶鑑』【蓼芩湯】 治自汗. 黃芪, 蜜炒, 人蔘, 白朮, 白茯苓, 當歸, 熟地黃, 白芍藥, 酒炒, 酸棗仁炒, 牡蠣粉, 各一錢, 陳皮, 七分, 甘草, 二分.<sup>54)</sup>

『東醫寶鑑』【鎮液丹】 治自汗. 黃芪, 蜜炒, 二兩半, 大附子, 二兩, 煨, 去皮臍, 童便浸炒, 防風炒, 白朮炒, 白芍藥, 酒炒, 中桂, 各一兩.<sup>55)</sup>

위의 두 처방은 동일한 출전에 수록되어 있으며, ‘治自汗’의 동일한 주치병증을 치료 목표로 하지만 처방명이 다르다. 또한 구성약제 및 약제 용량에 있어서도 표3(Table 3.)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Table 3. Comparison of 【Samgitang】 with 【Jinaekdan】

표 3. 【蓼芩湯】과 【鎮液丹】 비교

|     | 【蓼芩湯】 | 【鎮液丹】 |
|-----|-------|-------|
| 黃芪  | 一錢    | 二兩半   |
| 人蔘  | 一錢    | -     |
| 白朮  | 一錢    | 一兩    |
| 白茯苓 | 一錢    | -     |
| 當歸  | 一錢    | -     |
| 熟地黃 | 一錢    | -     |
| 白芍藥 | 一錢    | 一兩    |
| 酸棗仁 | 一錢    | -     |
| 牡蠣粉 | 一錢    | -     |
| 陳皮  | 七分    | -     |
| 甘草  | 二分    | -     |
| 大附子 | -     | 二兩    |
| 防風  | -     | 一兩    |
| 中桂  | -     | 一兩    |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할 때, 두 처방은 주치병증만 같을 뿐 약제의 구성과 용량 및 처방명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처방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두 처방은 동일한 주치병증을 가진 서로 다른 처방에 해당한다.

26. 주치병증, 구성약제, 약재용량이 다르고 출전, 처방명이 동일한 경우

『證治準繩』【養心湯】(1) 治心虛血少, 驚惕不寧. 黃芪炙, 茯神去木, 白茯苓去皮, 半夏麴, 當歸, 川芎各一錢半, 遠志去心, 薑汁淹, 焙, 酸棗仁去皮, 隔紙炒香, 辣桂, 柏子仁, 五味子, 人蔘各一錢, 甘草炙, 半錢.<sup>56)</sup>

『證治準繩』【養心湯】(2) 治心氣不足, 虛熱上攻而患瘡瘍者. 黃芪炒, 白茯苓, 半夏麴, 當歸, 川芎, 辣桂, 柏子仁, 酸棗仁炒, 五味子杵, 人蔘各三錢, 甘

52)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432.

53)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150.

54)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124.

55)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124.

56) 王肯堂 著. 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74.

草炒, 四錢.<sup>57)</sup>

위의 두 처방은 동일한 출전의 동일한 이름을 가진 처방인데, 그 외의 요소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먼저 주치병증을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治心虛血少, 驚惕不寧’, 후자의 경우 ‘治心氣不足, 虛熱上攻而患瘡瘍者’로 서술되어 치료 대상이 되는 병기와 증상이 서로 다르다. 또한 구성약재와 약재 용량에 있어서도 표4(Table 4.)와 같은 차이를 보인다.

Table 4. Comparison of 【Yangshimtang】 (1) with 【Yangshimtang】 (2)

표 4. 【養心湯】 (1)과 【養心湯】 (2) 비교

|     | 【養心湯】 (1) | 【養心湯】 (2) |
|-----|-----------|-----------|
| 黃芪  | 一錢半       | 三錢        |
| 茯神  | 一錢半       | -         |
| 白茯苓 | 一錢半       | 三錢        |
| 半夏麴 | 一錢半       | 三錢        |
| 當歸  | 一錢半       | 三錢        |
| 川芎  | 一錢半       | 三錢        |
| 遠志  | 一錢        | -         |
| 酸棗仁 | 一錢        | 三錢        |
| 辣桂  | 一錢        | 三錢        |
| 柏子仁 | 一錢        | 三錢        |
| 五味子 | 一錢        | 三錢        |
| 人蔘  | 一錢        | 三錢        |
| 甘草  | 半錢        | 四錢        |

이러한 점들로 보아 두 처방은 비록 처방명이 같고 출전이 같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각기 다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서로 다른 처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두 처방은 서로 다른 처방에 해당한다.

27. 출전, 처방명, 주치병증, 구성약재가 다르고 약재용량만 동일한 경우

『方藥合編』 【六味地黃元】 治腎水不足. 熟地黃八兩, 山藥, 山茱萸各四兩, 白茯苓, 牡丹皮, 澤瀉各三兩.<sup>58)</sup>

『東醫寶鑑』 【八味丸】 治命門火不足, 陽虛, 熟地黃 八兩, 山藥, 山茱萸 各四兩, 牡丹皮, 白茯苓, 澤瀉, 各三兩, 肉桂, 附子炮, 各一兩.<sup>59)</sup>

위의 두 처방은 구성 약재와 용량에 있어 熟地黃·山藥·山茱萸·白茯苓·牡丹皮·澤瀉 6가지 약재가 공통으로 동일한 용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八味丸】의 경우 六味地黃元에는 없는 肉桂, 附子炮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두 약재의 성질로 인하여 주치병증 또한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구성약재와 약재용량이 일부 공통된 부분이 있어 동일한 처방의 가감방일 가능성도 있지만, 치료 목표로 삼는 병리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처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두 처방은 서로 다른 처방에 해당한다.

28. 출전, 처방명, 주치병증, 약재용량이 다르고 구성약재만 동일한 두 처방의 경우

『方藥合編』 【對金飲子】 治酒食傷. 陳皮三錢, 厚朴, 蒼朮, 甘草各七分.<sup>60)</sup>

『東醫寶鑑』 【平胃散】 治脾胃不和, 不思飲食, 心腹脹痛, 嘔噦惡心, 噯氣吞酸, 面黃肌瘦, 怠惰嗜臥, 常多自利, 或發霍亂, 及五噎八痞, 膈氣反胃等證. 蒼朮二錢, 陳皮一錢四分, 厚朴一錢, 甘草六分.<sup>61)</sup>

위의 두 처방은 모두 陳皮, 厚朴, 蒼朮, 甘草 네 가지 약재로 구성된 처방이나, 약재 용량의 차이로 인해 君藥이 다르고, 이로 인하여 주치병증도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 외의 요소에서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처방은 서로 다른 처방에 해당한다.

29. 출전, 처방명, 구성약재, 약재용량이 다르고 주치병증만 동일한 경우

pp.289-290.

57) 王肯堂 著. 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08.

58)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27. 서울. 여강출판사. 1994.

59)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147.

60)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27).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337.

61)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150.

『東醫寶鑑』【清咯湯】 治咯血. 陳皮, 半夏, 茯苓, 知母, 貝母, 生地黃, 各一錢, 桔梗, 梔子, 炒黑, 各七分, 杏仁, 阿膠珠, 各五分, 桑白皮, 一錢半, 甘草, 五分, 薄桂, 二分.<sup>62)</sup>

『醫學入門』【聖餅子】 治咯血. 杏仁四十粒研細, 用黃蠟炒黃色, 入青黛一錢, 柿子一枚破開.<sup>63)</sup>

위의 두 처방은 주치병증만 ‘治咯血’로 동일하고 그 외의 구성요소는 모두 다르다. 따라서 두 처방은 동일한 주치병증을 가진 서로 다른 처방에 해당한다.

30. 출전, 주치병증, 구성약재, 약재용량이 다르고 처방명만 동일한 경우

『東醫寶鑑』【養心湯】 治憂愁思慮傷心, 或勤政勞心, 以致心神不足, 驚悸少睡. 白茯苓, 茯神, 當歸, 生地黃, 各一錢, 黃芪, 蜜灸, 遠志, 薑汁炒, 各八分, 川芎, 栝子仁, 酸棗仁, 炒, 各七分, 半夏麴, 六分, 人蔘, 五分, 甘草, 灸, 辣桂, 各三分, 五味子, 十四箇.<sup>64)</sup>

『證治準繩』【養心湯】 治心氣不足, 虛熱上攻而患瘡瘍者. 黃芪炒, 白茯苓, 半夏麴, 當歸, 川芎, 辣桂, 栝子仁, 酸棗仁炒, 五味子杵, 人蔘各三錢, 甘草炒, 四錢.<sup>65)</sup>

위의 두 처방은 처방명만 같고 그 외의 구성요소는 모두 다르다. 따라서 두 처방은 서로 다른 처방에 해당한다.

31. 처방명, 주치병증, 구성약재, 약재용량이 다르고 출전만 동일한 경우

『醫學入門』【養心湯】 治勞苦憂思, 痰多少睡,

驚悸不寧. 黃芪, 茯苓, 茯神, 半夏麴, 當歸, 川芎, 各五分, 甘草四分, 遠志, 辣桂, 栝子仁, 五味子, 酸棗仁, 人蔘各二分半.<sup>66)</sup>

『醫學入門』【歸脾湯】 治憂思傷脾, 內熱食少體倦, 或血妄行發熱嘔吐, 或健忘怔忡, 驚悸少寐, 或心脾作痛, 自汗盜汗, 或肢體腫痛, 大便不調, 或經候不調, 晡熱內熱, 或脣口生瘡, 流注等證. 當歸, 龍眼肉, 酸棗仁, 遠志, 人蔘, 黃芪, 白朮, 茯神各一錢, 木香五分, 甘草三分.<sup>67)</sup>

위의 두 처방은 출전만 『醫學入門』으로 같고 그 외의 다른 구성요소는 모두 다르다. 따라서 두 처방은 서로 다른 처방에 해당한다.

32. 출전, 처방명, 주치병증, 구성약재, 약재용량이 모두 다른 경우

『方藥合編』【逍遙散】 治月經不調, 及血虛, 惡心煩熱, 寒熱如瘧. 白朮, 白芍藥, 白茯苓, 柴胡, 當歸, 麥門冬, 各一錢, 甘草, 薄荷, 各五分, 薑三片.<sup>68)</sup>

『東醫寶鑑』【歸脾湯】 治憂思, 勞傷心脾. 健忘, 怔忡. 當歸, 龍眼肉, 酸棗仁炒, 遠志製, 人蔘, 黃芪, 白朮, 茯神, 各一錢, 木香, 五分, 甘草, 三分, 薑五片, 棗二枚.<sup>69)</sup>

위의 두 처방은 모든 처방의 구성 요소가 다르다. 따라서 두 처방은 서로 다른 처방에 해당한다.

### Ⅲ. 고찰

본론에서 출전, 처방명, 주치병증, 구성약재, 약재용량의 다섯개 요소의 차이에 의해 두 처방을 비교할 때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설정하고, 각 경우에 해당하는 실제 처방례를 통해 처방의 관계를 살펴

62)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110.

63) 李梴 編著. 金圭표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864.

64)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97.

65) 王肯堂 著. 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08.

66) 李梴 編著. 金圭표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892.

67) 李梴 編著. 金圭표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2116.

68)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27.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p.368-369.

69) 許浚 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98.

Table 5. The cases that compared formulae are same  
표 5. 두 처방이 서로 동일한 처방일 경우

| 출전 | 처방명 | 주치병증 | 구성약재 | 약재용량 | 처방간의 관계         |
|----|-----|------|------|------|-----------------|
| 同  | 同   | 同    | 同    | 同    | 동일처방            |
| 不同 | 同   | 同    | 同    | 同    | 최초 출전에 대한 전사    |
| 同  | 同   | 不同   | 同    | 同    | 주치병증의 확장        |
| 不同 | 同   | 不同   | 同    | 同    | 주치병증의 확장        |
| 同  | 不同  | 不同   | 同    | 同    | 처방의 이명, 주치병증 확장 |
| 不同 | 不同  | 不同   | 同    | 同    | 처방의 이명, 주치병증 확장 |
| 同  | 不同  | 同    | 同    | 同    | 처방의 이명          |
| 不同 | 不同  | 同    | 同    | 同    | 처방의 이명          |

Table 6. The cases that compared formulae are altered from the same formula in different ways  
표 6. 두 처방이 동일한 처방에 기반을 둔 가감방일 경우

| 출전 | 처방명 | 주치병증 | 구성약재 | 약재용량 | 처방간의 관계   |
|----|-----|------|------|------|-----------|
| 同  | 同   | 同    | 不同   | 同    | 가감방       |
| 同  | 同   | 同    | 同    | 不同   | 가감방       |
| 不同 | 同   | 同    | 不同   | 同    | 가감방       |
| 不同 | 同   | 同    | 同    | 不同   | 가감방       |
| 同  | 不同  | 同    | 同    | 不同   | 다른처방, 가감방 |
| 同  | 同   | 不同   | 不同   | 同    | 다른처방, 가감방 |
| 同  | 同   | 不同   | 同    | 不同   | 다른처방, 가감방 |
| 同  | 同   | 同    | 不同   | 不同   | 다른처방, 가감방 |
| 不同 | 不同  | 同    | 同    | 不同   | 다른처방, 가감방 |
| 不同 | 同   | 不同   | 不同   | 同    | 다른처방, 가감방 |
| 不同 | 同   | 不同   | 同    | 不同   | 다른처방, 가감방 |
| 不同 | 同   | 同    | 不同   | 不同   | 다른처방, 가감방 |
| 同  | 不同  | 不同   | 不同   | 同    | 다른처방, 가감방 |
| 同  | 不同  | 不同   | 同    | 不同   | 다른처방, 가감방 |

보았는데, 다시 요약하면, 동일한 처방인 경우, 가감방인 경우, 서로 다른 처방인 경우의 3가지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먼저 두 처방이 동일한 처방이라 할 수 있는 경우는 표5(Table 5.)와 같이 총 8가지 경우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구성약재와 약재용량이 동일하여 기록된 처방 구성에 따라 실제 처방을 전탕할 경우 같은 약물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로, 두 처방이 서로 동일한 처방의 가감방일 경우는 표6(Table 6.)과 같이 총 14가지 경우가 있다. 경향성을 살펴보면 구성약재와 약재용량, 둘 중 한 가지는 일치하는 바가 있으면서 다른 세 가지의 구성요소에서도 일치하는 바가 최소 한 가지는 존재하거나, 혹은 구성약재와 약재용량이 모두 다를 경우 다른 세 가지 구성요소 중에서 일치하는 바가 최소 두 가지는 존재해야 확인할 수 있다.

세번째로, 두 처방이 서로 다른 처방일 경우는 표7(Table 7.)과 같이 총 20가지 경우가 있는데, 셋 이상의 요소가 서로 다르거나, 출전을 제외한 다른 네 요소 중 둘 이상의 요소가 달라야 함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처방의 구성 요소 중 출전, 처방명, 주치병증, 구성약재, 약제용량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을 통하여서, 특정한 두 처방을 비교할 때 이들이 서로 같은 처방인지, 가감방인지, 서로 다른 처방인지 결정하기 위한 가설을 제시할 수 있었다. 즉,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처방의 관계를 분류하는데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요소의 비교를 통

해 처방간의 관계성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요소의 비교를 통한 처방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은 비교적 단순하여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면 제시된 가설을 바탕으로 수식을 설정하여 처방간의 관계성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석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처방 온톨로지 구축시 위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와 이를 바탕으로 한 처방의 비교 분석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제시된 처방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 IV. 결 론

1. 처방 내용에는 출전, 처방명, 주치병증, 구성약재, 포제법, 약제 용량, 복용법, 복용량, 복용시간, 복용횟수, 복용금지 등 모두 11가지 요소가 있는데,

Table 7. The cases that the compared formulae are different with each other  
 표 7. 두 처방이 서로 다른 처방일 경우

| 출전 | 처방명 | 주치병증 | 구성약재 | 약제용량 | 처방간의 관계        |
|----|-----|------|------|------|----------------|
| 同  | 不同  | 同    | 同    | 不同   | 다른처방, 가감방      |
| 同  | 同   | 不同   | 不同   | 同    | 다른처방, 가감방      |
| 同  | 同   | 不同   | 同    | 不同   | 다른처방, 가감방      |
| 同  | 同   | 同    | 不同   | 不同   | 다른처방, 가감방      |
| 不同 | 不同  | 同    | 同    | 不同   | 다른처방, 가감방      |
| 不同 | 同   | 不同   | 不同   | 同    | 다른처방, 가감방      |
| 不同 | 同   | 不同   | 同    | 不同   | 다른처방, 가감방      |
| 不同 | 同   | 同    | 不同   | 不同   | 다른처방, 가감방      |
| 同  | 不同  | 不同   | 不同   | 同    | 다른처방, 가감방      |
| 同  | 不同  | 不同   | 同    | 不同   | 다른처방, 가감방      |
| 同  | 不同  | 同    | 不同   | 同    | 다른 처방의 동일 주치병증 |
| 不同 | 不同  | 同    | 不同   | 同    | 다른 처방의 동일 주치병증 |
| 同  | 不同  | 同    | 不同   | 不同   | 다른 처방의 동일 주치병증 |
| 不同 | 不同  | 同    | 不同   | 不同   | 다른 처방의 동일 주치병증 |
| 同  | 同   | 不同   | 不同   | 不同   | 다른처방           |
| 不同 | 不同  | 不同   | 不同   | 同    | 다른처방           |
| 不同 | 不同  | 不同   | 同    | 不同   | 다른처방           |
| 不同 | 同   | 不同   | 不同   | 不同   | 다른처방           |
| 同  | 不同  | 不同   | 不同   | 不同   | 다른처방           |
| 不同 | 不同  | 不同   | 不同   | 不同   | 다른처방           |

그 중 처방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출전, 처방명, 주치병증, 구성약재, 약재용량 다섯 가지이다.

2. 이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비교하여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32가지인데, 이 가운데 출전만 다르고 다른 요소가 모두 동일한 경우, 주치병증만 다르고 다른 요소가 모두 동일한 경우 등을 비롯한 8가지 경우는 두 처방을 서로 동일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4. 32가지의 경우 가운데, 구성 약재만 다르고 다른 요소가 모두 동일한 경우, 약재 용량만 다르고 다른 요소가 모두 동일한 경우 등을 비롯한 14가지 경우는 두 처방을 동일한 처방에 대한 가감방이라고 할 수 있다.

5. 32가지의 경우 가운데, 처방명과 약재 용량이 다르고 다른 요소가 모두 동일한 경우, 주치병증과 구성약재가 다르고 다른 요소가 모두 동일한 경우 등을 비롯한 20가지 경우는 두 처방을 서로 다른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6. 처방 온톨로지 구축시 출전, 처방명, 주치병증, 구성약재, 약재용량의 다섯 가지 처방의 핵심 구성 요소, 핵심 구성 요소의 비교를 통한 처방간의 관계 분석 방법 및 핵심 구성 요소의 비교를 통해 제시된 처방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 感謝의 글

본 논문은 2014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References

1. Nan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Peng HR ed.. Zhongyifangjidacidian. Beijing. Publishing Company Renminweisheng. 1997.

南京中醫學院, 彭懷仁 主編. 中醫方劑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2. Wu Q et al., Yan ZA et al. ed.. Yizongjinjian. Beijing. Publishing Company Zhongguozhongyiyao. 1995. p.390.

吳謙等編著, 閻志安等校注. 醫宗金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p.390.

3. Science Technology Department of Zhejiang Province, Huzhou Chinese Medicine Hospital ed.. Yifangleiju jiaodianben(7). Beijing. Publishing Company Renminweisheng. 1981. pp.545-546.

浙江省中醫研究所, 湖州中醫院 校. 醫方類聚校點本(第七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p.545-546.

4. Heo J. The Original Text of Dongyibogam. Seoul. Publishing Company Namsandang. 2007. p.97, 98, 110, 113, 124, 147, 150, 205, 233, 235, 239, 432, 436, 450, 504, 520, 614, 640, 657. pp.141-142, 154-155.

許浚著. 原本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7. p.97, 98, 110, 113, 124, 147, 150, 205, 233, 235, 239, 432, 436, 450, 504, 520, 614, 640, 657. pp.141-142, 154-155.

5. Kim SG ed.. The Outline of Korean Medicine(27;Bangyakhappyeon). Seoul. Publishing Company Yeogang. 1994. p.291, 337. pp.289-290, 304-305, 368-369.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27;方藥合編). 서울. 驪江出版社. 1994. p.291, 337. pp.289-290, 304-305, 368-369.

6. Lee HG ed.. The Outline of Chinese Medicine(12;Renjizhizhi). Seoul. Publishing Company Yeogang. 1995. pp.399-400.

李漢求 編. 中國醫學大系(12;仁齊直指).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p.399-400.

7. Lee HG ed.. The Outline of Chinese Medicine(14;Jinguigouxuan). Seoul.

- Publishing Company Yeogang. 1995. p.715.  
李漢求 編. 中國醫學大系(14;金匱鉤玄).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715.
8. Lee HG ed.. The Outline of Chinese Medicine(42;Bencaogangmu). Seoul. Publishing Company Yeogang. 1995. pp.541-542.  
李漢求 編. 中國醫學大系(42;本草綱目).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p.541-542.
9. Lee HG ed.. The Outline of Chinese Medicine(46;Jingyuequanshu). Seoul. Publishing Company Yeogang. 1995. p.634.  
李漢求 編. 中國醫學大系(46;景岳全書). 서울. 驪江出版社. 1995. p.634.
10. Diao J. Shengjizonglu(Shangce). Beijing. Publishing Company Renminweisheng. 2006. p.244.  
趙佶 編. 聖濟總錄(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244.
11. Diao J. Shengjizonglu(Xiace). Beijing. Publishing Company Renminweisheng. 2006. p.1549.  
趙佶 編. 聖濟總錄(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1549.
12. He QH, Zhou S ed.. Compilation of Chinese Medicine Books(25;Kinds of generalization4;Yixuezhengchuan). Beijing. Publishing Company Zhongyiguji. 1999. p.183, 250.  
何清湖, 周慎 主編. 中華醫書集成(第25冊;綜合類4;醫學正傳).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183, 250.
13. He QH, Zhou S ed.. Compilation of Chinese Medicine Books(32;Kinds of generalization11;Leizhengzhizai). Beijing. Publishing Company Zhongyiguji. 1999. pp.57-58.  
何清湖, 周慎 主編. 中華醫書集成(第32冊;綜合類11;類證治載).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9. pp.57-58.
14. Wang KT. Lu Z ed.. Complication books of Wangkentang's Medicine(Zhengzhizhunsheng). Beijing. Publishing Company Zhongguozhongyiyao. 1999. p.466, 510, 572, 574, 1519, 1371, 1608, 2064, 2065, 2093.  
王肯堂 著. 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證治準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66, 510, 572, 574, 1519, 1371, 1608, 2064, 2065, 2093.
15. Wang A. Xiang CS ed.. Complication books of Wangang's Medicine(Yifangjijie). Beijing. Publishing Company Zhongguozhongyiyao. 1999. p.183.  
王昂 著. 項長生 主編. 王昂醫學全書(醫方集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83.
16. Gong TX. Li SH ed.. Complication books of Gongtingxian's Medicine(Gujinyijian). Beijing. Publishing Company Zhongguozhongyiyao. 1999. p.1357. pp.1198-1199.  
龔廷賢 著. 李世華 主編. 龔廷賢醫學全書(古今醫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357. pp.1198-1199.
17. Li C. Jin JP trans.. The New Translation of Bianzhuyixuerumen. Seoul. Publishing Company of Bubin. 2009. p.1864, 1892, 2116.  
李梴 編著. 진주표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1864, 1892, 2116.
18. Li C. The original Text of Bianzhuyixuerumen(2). Seoul. Publishing Company Deaseong. 1984. p.284.  
李梴 編著. 原本編註醫學入門(外集卷二).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284.
19. Publishing Company Tianjin Science and

- Technology ed.. Complication books of Four Great Doctor in Dynasty Jin and Yuan(Shang;Ranshimicang). Hebeisheng. Publishing Company Tianjin Science and Technology. 1999. pp.636-637.
- 天津科學技術出版社 總纂. 金元四大家醫學全書(上;蘭室秘藏). 河北省.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p.636-637.
20. The laboratory of Korean Medicine Classics ed.. Jin JP trans., Complication books of Four Great Doctor in Dynasty Jin and Yuan(Xia;Danxixinf). Seoul. Publishing Company Bubin. 2007. p.341.
- 진주표 注譯. 東醫文獻研究室 編. 金元四大家醫學全書(下;丹溪心法).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341.
21. Chen ZM. Xue LQ ed.. Xiaozhufurenliangfang(All texts)(3). Seoul. Publishing Company Woojueuiyak. 1975. p.54.
- 陳自明 著. 薛立齊 校注. 校注婦人良方(全)(卷三). 서울. 宇宙醫藥出版社. 1975. p.54.
22. Zhu XH. Fang G ed.. The New Editing of Danzizinfafuyu. Seoul. Publishing Company Deaseong. 1980. p.215.
- 朱震亨 著. 方廣 編注. 新編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1980. p.215.
23. Kim JH, Lee BW. Plans on the Methodology for the Classifications of Herbal Formulas with Similar Composition using the DB Systems.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8. 21(1). pp.143-151.
- 김정훈, 이병욱. DB를 활용한 方劑의 類方分析 방법 설계. 대한한의학회지. 2008. 21(1). pp.143-151.
24. Kim SG et al.. A Study on Reasoning based on Herb and Formula Ontologies.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9. 22(3). pp.97-105.
- 김상균 외 6인. 약재와 처방 온톨로지 기반 추론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9. 22(3). pp.97-105.
25. Kim HH et al.. Construction of Object-oriented Prescription Database and Design/Development of Prescription Search Program. Korea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2011. 17(2). pp.73-83.
- 김현호 외 4인. 객체지향형 처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처방 검색 프로그램의 설계 및 개발. 한국한의학회지. 2011. 17(2). pp.73-83.

